

“내 고장 알려라” 행정도 스토리텔링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해’ 행정에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고 나섰다. 특히 관광분야의 경우 단순히 관광지의 경관만을 홍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끌어내 관광지에 입히는 스토리텔링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관광지들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담양은 주요 산과 호수 등 흥미로운 형상과 설화를 스토리텔링과 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담양엔 피라미드의 형상을 한 삼인산과 산 능선이 마치 누워있는 부처를 닮은 주월산, 수변이 용을 연상케 하는 담양호 등 3대 자연유산이 있다. 군은 이들 관광지에서 유래된 설화와 경관 등을 이야기로 한데 묶어 소개하는 등 관광자원화 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삼인산(三仁山·해발 570m)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 등극을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 기도하던 중 삼인산을 찾았다는 꿈을 꾸 뒤 이곳에서 제

전남 시·군, 지역의 숨은 이야기 발굴 관광자원화



담양군

피라미드 형상 삼인산
부처가 누운듯 주월산
용을 닮은수변 담양호
이성계 설화까지 엮어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서
신혼부부 하룻밤 자연
자손 중 제왕 태어난다
임금바위의 전설도



목포시

멜라콩 다리 비(碑)와
옛 송도신사터 77계단
역사 아픔 간직한 유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를 올렸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 화려한 경관에 줄거리가 더해지면서 등산객들 사이에서 최고 의 등산지로 꼽히고 있다.

보성군이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도 해당 산에 대한 숨은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지역 최고의 관광코스라 각광받고 있다. 해발 807m의 제암산 정상엔 임금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보고 소원을 빌면 자손들

이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신혼 부부가 제암산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자손 중 제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제암산휴양림과 보성차밭, 보성차 박물관·태백산맥문학관을 잇는 관광코스가 신흥여행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목포는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 개발에 애를 쓰고 있다. ‘멜라콩 다리 비(碑)’와 ‘옛 송도신사터와 77계단’, ‘충순 구종명 영세불망비’ 등 역사적인 인물과 유래, 아픔을 간직한 근대사 유물 등을 스토리텔링화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일제 강점기 유달산을 일본인에게 팔아먹으려 했던 설화로 유명한 정병조 영세불망비와 일제 강점기 목포형무소 수감자들을 화장했던 장소를 가리는 목포형무소 합장비, 목포~신의주(498km)와 목포~부산(378km)의 출발 기점인 국도 1·2호선 원기점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사라져가는 설화를 보존하기 위한 11개 시·군의 설화 발굴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18년까지 설화 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를 각 시·군의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D-1



3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농업생태공원에 위치한 개구리논에서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와 주민들이 연극 ‘도롱뇽의 비탄’ 리허설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한 정치인들이 천둥·벼락을 맞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비엔날레 100배 즐기기’ 18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개구리논에서 연극하는 동네 배우들

일곡동 주민 ‘도롱뇽의 비탄’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개구리논에 주민들이 모여 연극 연습이 한창이었다. 주민들은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스페인)와 연극 ‘도롱뇽의 비탄’을 공연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도롱뇽과 개구리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이 대사를 주고 받으며 감정을 잡았고, 행동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주민들과 손발을 맞춰 온 도리 작가도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연극은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개구리논 주위에서 진행된다. 도리 작가가 완성한 각본에 따라 주민들이 연기를 한다. 의상과 음악도 모두 주민들이 준비했다. ▶2면으로 계속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작은빨간집모기

가을 길목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콜레라, 뇌염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에서는 올 들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나왔다. 환자인 설비기사 A(51·광주시 서구)씨는 지난 15일 고열과 경련 등 전형적인 일본 뇌염 증세를 보여 다음날 입원한 뒤, 항체검사 등을 통해 지난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이 환자는 의식이 거의 없는 반혼수 상태다. 뇌염은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에

가을 길목 ... ‘감염병’ 주의보

광주서 올 첫 일본 뇌염 환자 발생 ... 서구 50대 반혼수상태
전남 두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 ... 베트남 여행한 해남 60대
경남 거제에서 생선회·계장 먹고... 콜레라 세번째 환자 발생

물려 발병하는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도 95%는 아무 증상이 없다. 다만 치사율이 30%에 이르고 회복해도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난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가 중추 신경계에 침투해 피해를 주는 2군 법정 감염병이다. 환자 수는 2012년 20명(5명 사망), 2013년 14명(3명 사망), 2014년 26명(4명 사망), 2015년 40명(2명 사망)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모기 방역을 철저히 한 덕에 환자가 거의 없었던 터라 방역당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첫 콜레라 확진 환자가 나왔다. 경남 거제에 가족 여행을 다녀 온 B(58·광주시 서구)씨는 생선회와 계장류를 섭취했다가 콜레라에 감염됐다. 이후 경남 거제에서 생선회 등을 먹은 뒤 콜레라 감염된 두·세번째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에서는 두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광양에서 발생한 이후 이번에는 해남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국적으로는 11년

째 확진자다. C(64)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여행 계획 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한 뒤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 순창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구 대비 C형 간염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집단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집단감염이 아니라 고령 환자 비율이 높는데다, 적은 의료 시설 탓에 불법 진료로 인한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5년만에 첫 재판 열린 날 ▶6면

광주 제2순환도로

먹통 하이패스 불만 폭주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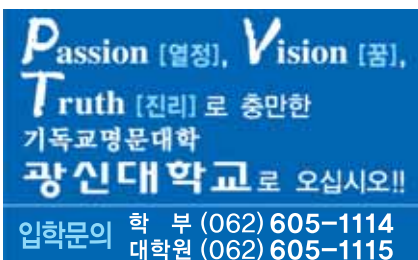


역사도시 나주에 문화 흥풍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열려 ▶11면

중국 인해전술을 넘어라

오늘 월드컵 예선 한국-중국전 ▶20면



2016광주비엔날레 09.02 - 11.06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THE EIGHTH CLIMATE (WHAT DOES ART DO?)

광주
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6광주비엔날레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THE EIGHTH CLIMATE(WHAT DOES ART DO?))’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66일 간 개최됩니다. 37개국 12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2016광주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장이 펼쳐집니다.

행사 기간 | 2016.09.02 - 11.06 (66일간)
주최·주관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광주광역시
전시장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제길미술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GKL사회공헌재단

셀트리온스킨케어
CELLTRION

크라운 호텔

광주신세계

NAVER

광주은행

HIROCHON

ASIANA AIRLINES